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의 변화와 과제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백 헌 기

대한산업보건협회는 60년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 최대 민간재해 예방기관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적용과정을 최일선에서 바라보고 있는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뒤에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역할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에 나타난 변화와 느낀 점을 소개하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통계에서 나타난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의 산업재해 통계는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큰 폭으로 줄지는 않았다. 올해 1분기 산업재해사고 사망자는 157명으로 하루 평균 2명이 사망했다. 2021년 1분기에 비해 산재사망자 감소는 8명(4.8%)에 불과하다. 둘째, 경영계에서 우려했던 중대재해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없었다. 법 시행 이후 59건의 중대산업재해로 65명이 사망했고 29명이 질병을 앓고 있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은 27건에 불과하고, 이 중 1건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셋째,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를 막고자 했던 취지는 아직 구현되지 않고 있다. 1월 27일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인 31건(52.5%)은 최근 5년간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발생했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10건 중 6건의 사망사고가 같은 사업장에서 되풀이됐다. 넷째, 중대산업재해가 하청업체에 집중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65명 가운데 원청 소속은 22명이고, 하청은 두 배 가까이 많은 43명이다. 이 점이 우리가 모두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 현장의 변화: 인식개선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현장에서의 변화 흐름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지난 3월부터 중대재해예방실을 신설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중대재해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실을 신설하고 나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컨설팅 의뢰가 접수되고 있다. 어쩌면 이 지점이 거대한 변화로 가는 작은 흐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업들이 선제적 예방조치에 나섰다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바로 인식개선이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연착륙 방안 찾아야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연착륙시켜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작은 단초라고 할 수 있다.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 나가야 한다. 현장에서 법이 잘 뿌리내리도록 힘을 쏟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면 보완하면서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연착륙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하나는 노사 협력이다. 사람 목숨은 노와 사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하는 공동 목표다. 노사가 공동으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둘째는 대한산업보건협회처럼 현장을 잘 알고 현장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쳐 본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실효성 있는 진단과 컨설팅이 확대돼야 한다.

### 50인 미만 사업장 선제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이대로라면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보건 시스템을 만들기도 힘들고, 안전보건인력을 채용하기도 어렵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노·사·정이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오랜 기간 굳어진 사업장의 기존 안전보건시스템을 생각하면, 중대재해 처벌법이 하루 아침에 현장에 안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노·사·정이 같이 논의, 대화, 홍보하면서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 최대 민간산업재해예방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도 노동자 생명을 지키는 작은 힘이나마 보탬 것이다. 🍀